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 나! 자신이 되다.

작년부터 줌(ZOOM)을 통해서 스페인에서의 심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속 그룹의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속 그룹이란 성별, 인종/민족, 종교 또는 지리를 포함한 일련의 특성이나 요인에 따라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집단과 비소속 집단을 구별하려는 우리의 경향은 종종 도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소속 그룹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가족, 친척, 학교 등 소속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적, 비언어적인 관계의 코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바로 그 관계의 코드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소속 그룹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슬픔, 잘못, 수치심, 괴로움 등의 심리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소속 그룹의 명령과 나를 구별하며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코(2017년 제작된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구엘(12세의 소년)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신발을 만들어 판매해 생계를 꾸려왔고 음악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금기시해 왔습니다. 미구엘의 증조할머니인 코코는 이 집안의 최대 어른이었는데 코코 할머니의 아빠는 코코가 아주 어린 시절 음악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코코를 키우기 위해 신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구엘의 집안은 음악에 대해 극도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자신의 뮤지션의 꿈을 키워나가는 미구엘을 통해서 소속 그룹의 명령과 나 자신을 구분하며 꿈을 이뤄가는, 즉,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작업 제안

1. 리스트: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봅시다. 어린 시절 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말과 그래서 닮아 가려 했던 행동에 대한 리스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해’, ‘너 바보야’, ‘실수하면 안 된다’, ‘너 때문에’, ‘너는 항상 이렇다’, ‘1등만 하면 된다’, ‘역시’, ‘울면 안 돼’, ‘약해 빠져서’, ‘하지 마’, ‘너는 착하니까’, ‘참 이쁘구나’ 등 이런 말들을 통해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표현의 명령을 느끼게 됩니다.
2. 작성한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어디에 자기 삶이 묶여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리스트를 작성하듯 타인의 탓을 찾지 말도록 합시다. 이 마음 작업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6)

## 각 교정시설 설날 간식 지원



1월 27일(목) 서울남부구치소(1,850개)에 오색바람떡을 서울동부구치소(2,200개)와 서울남부교도소(1,300개)에는 한과세트를 고봉중고등학교(230개)와 분류심사원(230개)에는 햄버거 세트를 설날 간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날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22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2월 4일(금)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제22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에는 영상(6회기)으로 기초교육이 진행되었고 2월부터 4월까지 교정사목센터에서 심화교육(10회기)이 진행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교정시설에 출입할 수는 없지만, 봉사자 양성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2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으로 교육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김도훈 라파엘 신부님 환송식)



2월 7일(월)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제기동 성당으로 이동하게 된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김도훈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 소임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고해성사 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치유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특별히 소중했던 현장들이었다.”라며, “짧지만, 강렬해서 앞으로 사제생활을 하는데, 교정사목에 있었던 시간이 큰 양분이 되고 좋은 기억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수용자들과의 만남은 거룩한 성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후원과 만남이 아픈 이들에게 커다란 성사의 역할이 되고 우리 사회의 큰 빛으로 작용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임지에서 도 언제나 영육간 건강하고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님 환영식



2월 8일(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송정섭 시몬 신부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신부님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송정섭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님의 평화를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은희 발레리아\_서울동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성가가 좋아서 성가대를 하게 되어, 몇 번 구치소에 갔습니다.  
봉사자의 추천과 하느님께서 큰 선물로 교육을 받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사 때는 수용자들 모두가 오빠, 동생처럼 느껴졌고, 아무 생각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츰,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주 교정시설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야근까지 하며 일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신없이 교정시설에 갈 때는 함께하는 봉사자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마움과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이 생각이 나서 더욱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5월, 성모님의 밤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수용자들 모두에게 편지와 장미꽃을 제대에 바치며 기도드리고 있는데, 수용자 한 분이 빨간 장미꽃을 제대가 아닌 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부끄러웠는지, 그냥 성가를 부르러 왔을 뿐인데,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 후로는 성가를 부를 때 더욱더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이 수용자들에게 전해지길 기도드렸습니다.  
오금동에서 문정동으로 구치소가 이전한 후에도 그 수용자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를 건넸고 큰 선물을 그냥 두고 오는 허전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집회나 미사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 생각이 납니다.  
구치소 봉사를 하면서 세상이 아름답고 하느님의 낙원이 마음속에 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수용자분들도 주님의 평화를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봉사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노래를 반주해주신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

제가 이곳에 오게 되지도 벌써 7개월이 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곳구치소에서 사랑의 편지 쓰기 라는  
행사가 있어서 지나온 저의 인생과 평소의 어머니께 편지 쓰기  
못한 말들을 이자리를 통해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적 부터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살아 왔던것 같 아요.  
어릴적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집에 불을 지르고 줄아서 박수치던  
저에 모습도 생각이 나고 차를 좋아해서 남의 차기도 훔쳐서 숨겨놓고  
일도 못하게 했던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학창시절 에도 운동하고 싶다고 조르고 졸라서 배우게 해주셨는데  
저는 힘을키워서 싸움을 하고 부모님을 학교로 오시게 했던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유리일을  
배우면서 음급받으면 돈이 다 소진될때 까지 친구들과 술먹고 놀러  
다니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미성년자 나이에 주유소에서도 일해보고  
현장에서도 일해보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허락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볼수 있게 도와주셨고 중간에 포기  
하고 사고만 치는 저를 끝까지 키워주시고 이 만큼 살아갈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와 동생보다 장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버지께 항상  
좋은 핸드폰 좋은 자전거 모든 것을 좋은것만 쓰게 남부럽지 않게  
키워 주셨는데, 저는 항상 부모님께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겨  
드리며 살아 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조금 달라져야 하는 저는 더 많은 사고를 치고 빚도  
많이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제 자신의 실속보다.  
직원들을 먼저 챙기고 항상 돈없이 힘든 삶을 살아 왔지만.  
그래도 언제나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또 한번의  
고통을 안겨드리고 작년 1월에 시작한 사업은 돈을 조금 벌어 보려고 할때  
기회를 날려버리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게 되었다면 조금만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렸다면  
 이곳에서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 32년 동안 천천히 천천히  
 하던 제가 감히 부모님께 편지를 쓸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구치소에서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책도 많이 보고  
 한자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끝없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不孝父母死 1 岁 1 月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뒤에 누워있다." 라는것을  
 공부하고 난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로 복귀하면 정 말효도는  
 못하더라도 불효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고 제자신과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해봅니다.  
 작년 4월에 태어난 우리 꼬카 채 물이. 어머니의 첫번째 손녀딸  
 손녀딸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에 저 또한 꼬카에게  
 부끄러운 삼촌이 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남으신 인생 우리 가족들  
 과 행복한 시간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동안 독서를 많이 하고 꼭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독서를 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 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꼭 변화되어 살아가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응원하고 기원 합니다.  
 2022년 1월 4일  
 아 들 이 [ ] [ ] 올림.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후원한 서울구치소 <가족사랑편지쓰기>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OO형제님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 운영위원으로서의 10년을 회상하며

원유만 베드로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기쁨과희망은행의 운영위원으로 봉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1월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개소하였는데, 처음 개소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쁨과희망은행의 본부장과 직원이 센터를 방문하여 출소자들에게 창업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여 천주교 신자로서 열렬결에 승낙을 한 것이 기쁨과희망은행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쁨과희망은행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성공 창업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신부님께서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여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무렵에 성동구치소의 창업 담당 교도관께서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의 창업 교육을 요청하여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정부교도소, 서울 북부보호관찰소 등에서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과 인연이 되어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교도관, 봉사자, 기업체 대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와 출소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선입견도 없어졌습니다.

운영위원으로서 10여 년을 보내며 인생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수용자와 출소자분들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무관심, 출소 후의 자활, 피해자 가족분들의 크나큰 고통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과 수용자와 출소자분들의 사회적 무관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10여 년간을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도 느꼈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고 성공하여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가꾸어 가면서 고맙다는 연락을 하여 온 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창업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파산하여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창업자들보다는 실패하는 창업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창업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창업 상담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창업하여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의 차이점은 학력이나 경력, 능력보다는 오히려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가짐과 항상 배우려는 성실한 자세 및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세 등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가 쓴 “인생은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절에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느님께서 금방 알아채시고 우리에게 봄과 가을을 주십니다. 그동안 기쁨과희망은행의 운영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1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베드로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제 가족을 돌봐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떨어져 있는 저로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만 앞서 있었는데, 신부님과 교정사목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 구정 때 애들 엄마로부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혼자 외롭게 육아를 하는 저의 아내에게 자매님, 수녀님의 따뜻한 위로 전화로 인해 아이 엄마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저 또한 그로 인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재주가 워낙 없어서 제 마음과는 다른 뜻으로 느껴지실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 이 편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보내주신 기도문들을 통해 기도드리고 성경 필사가 아닌 매일미사의 복음 말씀을 매일 필사를 하고 지내며,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형생활이 많이 남아있지만, 반성을 많이 하고 가족들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교정사목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종교행사가 열리지 않지만, 하루빨리 종교행사를 통해 하느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늘 하느님 말씀 되새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2022. 02. 16

베드로 올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이송 간 수용자 가족 지원을 받는 형제님이 현대일 신부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2022년 4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4월 4일(월)
- ▶ 4월 11일(월)
- ▶ 4월 18일(월)
- ▶ 4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중서울 길음동성당
-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 파운드케이크 ₩5,000
- ▶ 통밀식빵 ₩5,000
- ▶ 통밀두부과자 ₩5,000
- ▶ 흑미식빵 ₩5,000
- ▶ 무가당빵 ₩6,000
- ▶ 통밀모링가빵 ₩8,000
- ▶ 엄마빵 5개 ₩10,000
- ▶ 블루베리베이글 5개 ₩10,000
- ▶ 단팃빵 5개 ₩10,000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3~2/10)

2022년 1월~2월에는 Sr.조성애 잔말구, 강철민, 박옥숙 비비안나, 김인숙 세실리아, 김현진 루시아, 사베리아, 서민연 가타리나, 손은자 카타리나, 진명희 아네스, 함재경 올리아나, 홍혜숙 켄마, 황지선 로사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